

교육에 대해서 묻다

김성수 교수 (고신대학교 전 총장) / 인터뷰어: 한윤식 교수 (한동대학교 교수)

Q. 총장님께서서는 젊은 시절부터 기독교 학문 운동에 헌신하셨는데,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국내에서 존 듀이(John Dewey) 교육철학 연구에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도교수님은 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중직자였었는데 강의실에서는 한 번도 성경적 관점에서 교육학에 접근해 보도록 도전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일의 신앙과 연구실에서의 학문 활동은 철저히 별개의 행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고신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했을 때 첫 강의에서 저는 정말 '용감'하게도 학생들에게, "신앙과 학문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웃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항상 저의 개인적인 신앙적 관점이 제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육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육학을 성경적 신앙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헨리 미터의 "칼빈주의 문화관"을 읽으면서 한 가닥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고, 교육학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시도하는 논문과 책들을 조금씩 대하면서 연구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아공화국 포츨스트룸대학교(Potchefstroom University)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기독교학문에 심취하

게 되었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일에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신앙과 학문행위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관련 분야의 논문과 책들을 읽고 연구하는 자체가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책의 활자와 문장들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84년도에 귀국하니 이미 국내에서는 양승훈 교수님이 '기독교대학 설립 동역회' 운동을 활발히 하고 계셨고, 김현수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기독교학문연구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과 같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Q. 고신대학교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총장(2005년부터 2013년까지)을 역임하셨는데, 총장시절에 기독교학문 운동을 위해서 어떤개혁들을 하셨는지요?

기독교학문 운동을 위해서 개혁적인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다만 고신대학교가 기독교세계관과 학문 운동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봉사했을 따름입니다. 유학시절 포츨스트룸대학교의 경우를 보니 '학문의 이론 (1)'이라는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기독교세계관의 기본적인 관점을 갖게 하고, '학문의 이론 (2)'를 통해서 자

신의 전공과목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돌트대학(Dordt College)의 경우는 '철학 101' 과목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철학적, 세계관적 기초를 구비하게 하고, 4학년이 되면 '소명, 과업 그리고 문화'(Calling, Task and Culture)라는 정책 과목을 통해 세속문화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에도 '기독교대학과 학문'이라는 정책과목을 개설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에 기독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교수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교수들이 기독교적 학문 연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연구소의 설립과 대학원 학생들이 기독교적 학문 연구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Q. 신입 교원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도 하고, <신앙과 학문>에 투고를 적극 권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들을 어떻게 격려했는지요? 결과는 어떠했는지요?

교수들이 기독교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시행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외국의 저명한 기독교 학자들을 초빙해 그분들의 강의를 직접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엘 월터스, 제임스 사이어, 니콜라스 월터스톨프, 샌더스 호리피운, 마이클 고크, 베니 반데발트 등 정말 많은 학자들을 초빙했습니다. 캔 허만, 리차드 에들린 같은 학자들은 몇 학기 동안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대학원 강의와 교수연수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교수들이 기독교학문 운동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유익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는 교수들이 기독교 학문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학문 분야의 번역 과제, 공동 저술 과제, 중점 연구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었

습니다. 셋째는 매 학기 국내외 저명한 기독교 학문 분야 학자들을 초빙해서 '개강학술특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서 귀한 강의 내용을 번역 출판함으로써 교수 및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에 대한 관점과 통찰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기학연 주최의 기독교학술대회와 한동대, 백석대, 고신대가 함께 개최했던 기독교대학과 학문에 관한 공동 학술대회는 교수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는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교수들이 외국의 기독교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총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런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입교수들을 독려하는 일은 비교적 용이했지만 이미 이원론적인 사고에 안주해 있거나 기독교적 학문 운동에 냉담하거나 관심이 없는 교수들을 자극하고 격려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Q. 외국 학생들을 받아서 기독교세계관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셨지요?

저는 고신대학교가 복음의 빛을 갠 세계선교중심대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국, 동남아 등 소위 제3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서 이들을 선교사와 목사, 청소년 지도자로 양성해서 파송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목회학 석사과정(M. Div.)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지도자들이 지금 탄자니아, 케냐,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케냐 데이스타대학교(Daystar University) 출신 벤슨(Benson)군은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미국 시카고 시티 칼리지(City College of Chicago)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Q. 선교지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대학들이



인터뷰를 진행 중인 한윤식 한동대 교수(왼쪽)와 김성수 전 고신대 총장(오른쪽)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수 확보와 재정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지 대학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요?

신실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선교지에 신학교와 기독교대학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 선교지 대학들이 기독교대학으로 잘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성원들이 동질적 신앙과 비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서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뜨거운 가슴으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대학이나 학교를 세우기 전에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다음에 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예배하기 위한 교회를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신앙가정의 자녀들을 주일

“앞으로는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니 국가의 교육독점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과 권리는 부모에게 있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한 유치원과 기독교학교의 설립, 그리고 교회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의 설립이 뒤 따라야 합니다. 넷째는 기독교대학을 설립할 경우 인문학과를 중심으로 전공과목을 개설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취업과 자기고용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의 전공을 개설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 확보와 훈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개혁과 교회 사역자 양성에 힘쓰지 않으면 한국교회를 상대로 하는 후원금 확보는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Q. 미국의 칼빈대학교가 기독교대학으로서는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고신대학교가 이에 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대학교와 비교해서 고신대학교에서 추진한 자랑스러운 일을 이야기해주시지요.

기독교세계관과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고신대학교를 미국의 칼빈대학교와 ‘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기독교대학을 향한 동일한 비전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 역시 성경적 관점에서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기독교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칼빈대학교와 고신대학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간 추진했던 몇 가지 자랑스러운 일들을 회상해 본다면 고신대학교가 좀 더 선교 지향적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해는 많게는 200여 명의 고신대학교 학생들을 해외봉사단원으로 파송해서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하던 일, 또 복음병원장과 함께 북한 평양 보통강 호텔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평양제과제빵 공장과 집단 농장, 그리고 정말 열악한 평양의대 부속병원을 한민족복지재단을 통해 후원하면서 평양봉수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은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유학 와서 생전 처음 겨울을 맞이하며 흰 눈을 마냥 신기하게 대하던 아프리카 학생들을 무주 스키장으로 데려가서 스키를 함께 타며 즐기던 시간들도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지요.

Q. 교육학 분야에 기독교적 관점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육학 분야에 기독교적 관점을 접목시키는 과업, 다르게 말하면 교육학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 또는 구속의 의미를 단순히 ‘영혼 구원’으로 보는 협의적 관점에서 보다 더 우주적, 총체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영역에는 그 어느 것도 구속의 범위 밖에 버려둘 것이 없다는 관점이지요. 교육학 분야 역시 인간의 타락의 영향으로 왜곡되었기에 구속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따라서 교육학 연구와 신앙적 행위를 구분하는 이원론

적 관점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학 분야에 기독교적 관점을 접목하는 것은 소위 일반 교육학에 기독교적 가치를 단순히 추가하거나 피상적으로 적용 또는 조화시키는 부대적(extrinsic) 관계가 아니라, 교육학 자체의 내적개혁(inner transform)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육학의 내적개혁은 교육학을 기독교화하거나 기독교적 목적을 위해 교육학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 또는 관점, 특별히 인간관, 실재관, 가치관의 전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학문의 역사는 전통적으로 합리주의, 실용주의, 과학주의, 실증주의, 구성주의 등과 같이 기독교 복음에는 이방적인 토양에 그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교육학의 토양과 뿌리를 혁신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토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학 자체의 내적개혁 활동을 구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제 또는 관점에서의 접근을 가정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내재적 오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예리한 통찰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관점과 전제를 달리 했을 때 어떤 비판과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형적 비판의 능력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창조-타락-구속)의 기본적인 틀은 물론, 기독교 철학적인 틀을 가져야 합니다.

Q. 오늘날 한국의 교육행정이 보다 기독교 정신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혁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학생들이 혼동스러워 하는데, 현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교육정책은 정치권이나 이익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따라 조령모개 식으로 바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해서 비교적 장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는 교육부

의 수장이 바뀔 때 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언제나 전문성과 합리성, 그리고 교육적 원리에 입각해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리와 가치관의 틀을 통해서 교육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인기위주의 공약을 쏟아놓고 시행하려고 하면 교육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가 교육에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실질적인 사립학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하고, 커리큘럼 등 일체를 정부가 간섭을 합니다. 대학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 정부는 대학도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교육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이미 공립화되거나 준공립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편성권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니 국가의 교육독점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과 권리는 부모에게 있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국가가 거의 독점적으로 통제 관할하고 있는 학교라는 제도도 원래는 지식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분화로 말미암아 소위 교사라고 하는 어떤 전문 집단에게 부모들 편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권리를 일부 위임해 줌으로써 생겨난 것이지 처음부터 공교육의 형태로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가 가질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손에 되돌려져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통치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국가는 교육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질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의 수준을 결정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합당한 방책으로 재제를 가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때로 공교육제도를 입안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부모들에 의해서 설립되어져야 하지만 부모들이 만약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될 때에는 국가가 공교육제도를 마련하여 장래 시민들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합당한 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의무교육제도를 주창한 것은 부모의 교육적 책임과 권리를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을 학

대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소홀히 한 당시 사회의 부모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동은 한 가정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장래 사회와 국가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들의 교육을 등한시 할 때 국가는 합당한 방책을 강구하여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는 장래 시민들의 교육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가 제공한 제반설비들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일차적인 권리와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와 틀을 통해서 교육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육의 기회를 독점하고 규제하기 보다는, 부모의 세계관을 따라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더욱더 신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획일적인 교육보다 자율적인 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과 6.25 전쟁 후에도 황폐했던 한국을 재건하는 일에는 교육의 힘이 지대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역시 문맹퇴치, 과학기술의 도입, 경제발전, 여성인권 신장, 민족지도자 양성 등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이와 같은 교육의 힘과 역할에 대해 신뢰보다는 오히려 불신감이 팽배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육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성과 자율성의 신장보다는 획일적, 억압적, 통제적, 독점적인 경직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제도 및 학교라는 사회적 기구 그 자체가 실제로는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사를 보면 19세기 말까지는 교육에 대한 비판이 주로 문화전승이라고 하는 보수적 기능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도 주로 학습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 학교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교육의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의 조화 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학교와 교실의 심리적 분위기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학교가 감정적이며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을 개발시키지 못하고 있다거나, 교육이 아동의 자유로운 성장과 자율적인 자기 개발을 방해하거나 제한 또는 질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사와 학부모는 교육에 대한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독교교육은 현대의 공교육제도가 선택보다는 복종, 인간성회복보다는 제도화된 굴종과 복종감을 조직적으로 함양하여 기존 문화의 가치 체제에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훈련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비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율성의 신장에는 언제나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독교대안교육이 종교적 신념의 자율성과 특수성만을 주장하면서 교육의 질과 수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소홀히 해서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대안교육이 빈약한 수준의 교육시설을 연상시키면서 수업시작 전후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다른 교과목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성경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 평생 교육에 종사하시면서 오늘날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전에는 학생과 교수 또는 선생과 끈끈한 관계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학생들이 단지 취업을 위한 지식을 얻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영어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습득에는 열심이지만, 인간관계나 인성 교육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 교육에서는 이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68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수님을 생각하던 마음이나 자세와 오늘날 학생들의 그것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자와 스승간에 있어야 할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끈끈한 관계가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중학교 여교사의 수업시간에 남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일부 교사들은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통탄스런 일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지식은 발전해 가지만 인간성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자유, 존엄성, 자율성, 자아실현을 교육과정의 지도 지침적 원리로 보면서 '학습자의 주권'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극도의 낙관론적인 인간관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교육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자신 외에 타인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느냐를 결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동은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개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의 창의력, 독창력,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육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어떤 학습자도 단순히 교육적인 주조나 교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교육의 장에서 모든 형태의 외적인 권위를 다 거부해 버린다는 것은 훈련이나 징계를 자유의 개념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는 왜곡입니다. 훈련, 징계, 자유는 상호독립적으로 획득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본질상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에 아동의 자연적 욕구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지도적인 원리 또는 규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교육은 아동의 전적인 자유와 자율성, 학습자의 주권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자유는 규칙과 규율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기독교교육의 장에는 언제나 훈련과 온화한 징계가 참된 사랑과 친절의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행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Q. 사모님께서 음악을 전공하셨고, 독일인 사위가 피아프오르간의 대가라고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여러 번 바하(Bach) 전곡을 연주했다고 하지요? 한국에도 방한해서 피아프오르간 연주회를 했다고 들었는데, 가족 소개를 좀 해 주시지요. 자녀양육에 총장님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요?

아내(이경숙)는 2남 6녀 중 셋째 딸이고 저는 2남 4녀 중 장남입니다. 장인은 고려신학교 4회 졸업생인 이맹희 목사님이시고 저의 선친도 늦게 신학을 하셔서 고려신학교 13회로 졸업하신 김중만 목사님이십니다. 아내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교회반주자로 봉사했습니다. 교회반주자로 아주 성실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의 부친이 소개해 주셔서 77년도에 결혼했고 1남1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두 자녀 모두 제가 미국 돌트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는 것을 계기로 아이오와주 수 센터(Sioux Center)에 소재하고 있는 기독교학교에서 공부하고, 아들(김광현)은 돌트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미국 LG 법인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딸(김은혜)은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후 미국 버지니아 로올라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위(Felix Hell)는 피아프오르간 연주자로서 여러 나라에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바하 전곡을 연주하는 등 두 차례 정도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하되 특별히 제가 평생을 연구하고 가르친 기독교적 교육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과 교회봉사를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